

Governance Opinion

< 꼼직한 자식 사랑 >

코

스닥 상장기업 우원개발은 일반 대중들에게 흔히 잘 알려진 기업은 아니다. 하지만 우원개발은 고속도로나 교량, 터널, 항만 등 토공 분야에서 오랜 업력을 쌓아온 기업으로 2015년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발표한 시공능력평가에서 토공분야 5위를 기록할 만큼 저력 있는 건설전문기업이다.

우원개발은 다년간 축적된 다양한 건설시공능력과 ISO9001 인증 획득을 통한 철저한 시공관리 등을 앞세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점보드릴, 크라샤플랜트 등 고가의 대형 건설 중장비를 자체 보유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수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우원개발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공사는 대형건설사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건설을 수주하여 시공하게 되는데 우원개발은 삼성중공업, 태영건설, 현대엠코, 대림산업 등 메이저 건설사로부터 수 차례 감사패를 수여 받는가 하면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표창까지 받으면서 업계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2016년 6월말 기준으로 우원개발의 총 자산은 약 1,135억원 수준이며, 반기 기준 약 1,015억원의 매출에 22.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시가총액은 약 800억원 수준이다.

2016년 6월말 기준 우원개발은 최대주주는 현 대표이사인 김기영 대표이사와 그의 배우자인 신영임 씨로 약 43.16%의 지분을 보유하여 안정적인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다.

김기영 대표이사의 자녀 사랑

우원개발의 2016년 6월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우원개발은 기타의 특수관계자로 분류된 우원에스오씨로부터 약 26억원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전년도인 2015년 한 해 동안은 약 70억원을 매입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우원개발이 우원에스오씨로부터 매입했다고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연도	매입액	비고
2016년(반기 기준)	2,595,290	
2015년	6,983,561	
2014년	3,667,196	
2013년	7,931,170	
2012년	12,644,173	
2011년	9,220,951	
2010년	1,880,606	

위의 표에서와 같이 우원개발은 매년 수십억원에서 100억원이 넘는 금액은 기타의 특수관계자인 우원 에스오씨로부터 매입하고 있다.

2006년 설립된 우원에스오씨의 최초 사업 목적은 시설물 공사업과 건설장비임대업 등이었다. 우원개발과 관련성이 강한 사업들이었다. 그런데 우원에스오씨는 2011년 초에 음식점업 및 음료, 식료품 판매업 등의 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게 된다. 우원개발이나 기존 우원에스오씨의 사업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 공공로케도 우원에스오씨가 이러한 사업들을 추가한 2011년부터 우원개발이 우원 에스오씨로부터 매입하는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우원개발과 우원에스오씨의 접점을 우원에스오씨의 수많은 지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원에스오씨는 2011년 3월 21일 경북 칠곡과 전북 익산 등 전국 곳곳에 동시에 5곳의 지점을 개설하였다. 그런데 경북 칠곡과 전북 익산은 2010년 말 우원개발이 각각 삼성물산과 동부건설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한 곳이다. 경북 칠곡의 경우 경부고속철도 제10-1공구 공사 중 우원개발은 토공 및 교량공사를 맡아 수행하였으며, 전북 익산은 호남고속철도 3-1공구에서 토공 및 구조물 하부공사를 수행한 지역이다. 두 공사 모두 계약금액은 약 170억원 대로 적지 않은 규모였다. 그 외에도 경남 김해에 설치된 우원에스오씨의 지점은 2009년 우원개발이 대림산업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무계삼계 현장이며, 경남 거창에 설치된 지점은 우원개발이 (주)한양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담양-성산 공사 현장과 일치한다.

결국 우원에스오씨는 우원개발 공사 현장에 지점을 설치하여 이른바 '함바식당'이라고 불리는 건설 현장식당을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건설 현장식당은 상당수가 독점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상당한 이윤이 보장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함바 비리는 수 차례 언론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최근에는 현직 검사장의 처남이 해당 검사장의 지휘 아래 재판을 받고 있던 피의자가 대표

로 있던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함바 운영권을 넘겨 받아 사업을 운영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런데 우원개발은 이처럼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매력적인 건설 현장식당 사업권을 수년에 걸쳐 기타의 특수관계법인인 우원에스오씨에 제공하였다. 게다가 우원에스오씨는 2011년 3월 처음으로 현장식당 지점을 설치하기 약 1개월 전인 2011년 2월 말에 처음으로 사업목적에 음식점업 등을 추가할만큼 관련 사업 경험이나 인지도가 있는 업체도 아니었다. 우원에스오씨가 우원개발로부터 수십억원대의 현장식당 운영권을 획득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현재 우원에스오씨의 사내이사는 김정익 씨 1인이다. 1975년생인 김정익 씨는 우원개발과 무관한 인물이다. 2008년 7월 김정익 씨는 우원개발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현 우원개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김기영 대표이사(1946년생)와 함께 이사로 선임된 바 있다. 당시 우원개발은 공시를 통해 김정익 씨가 당시 최대주주였던 김기영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라고 언급했다. 이를 통해 김기영 대표이사과 김정익 씨의 관계는 부자관계로 추정된다. 김정익 씨는 2008년 7월 이사로 선임된 이후 2010년 6월 우원개발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임할 때까지 약 2년간 우원개발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아울러 우원에스오씨의 실소유주 역시 김정익 씨로 추정된다. 그렇게 본다면 우원개발은 현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의 아들인 김정익 씨가 소유하고 경영하는 우원에스오씨에 건설 현장식당 운영권을 집중시켜 줌으로써 우원에스오씨와 김정익 씨의 이익을 도모하는 의사결정을 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2010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우원개발이 우원에스오씨에 지급한 건설 현장식당 운영대금 등은 약 450억원에 달한다. 게다가 여전히 우원에스오씨는 우원개발의 충주현장과 도담영천현장, 하남현장 등에서 현장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우원개발의 우원에스오씨에 대한 지원이 여전히 진행중인 사안인 것이다.

더군다나 우원에스오씨의 본점 소재지는 서울 서초동 오피런스빌딩 18층이다. 이는 우원개발의 본사 주소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우원개발과 우원에스오씨는 사실상 하나의 조직과 마찬가지로 관리되고 있지만 그 이익은 우원개발과 전혀 무관한 우원에스오씨와 우원에스오씨의 소유주인 김정익 씨의 몫이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수년간 우원개발로부터 단 한 푼의 배당금도 받지 못한 우원개발 주주들로서는 우원에스오씨와 김정익 씨의 독점적 이익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우원개발 김기영 대표이사의 자식 사랑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2016년 3월 우원개발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새로운 사내이사 1명을 추가로 선임하게 된다. 바로 김정민 씨이다. 1973년생인 김정민 씨는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김기영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으로 기

재되어 있다. 나이와 관계 등을 고려해 봤을 때, 김기영 대표이사의 자녀로 추정된다.

그런데 우원개발은 2016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1명을 증원하면서 동시에 이사 보수 한도를 대폭 상향했다. 기존 이사보수 한도는 사외이사 1인을 포함해 총 3명의 이사에 대해 11억원이었으나 201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를 1인 증원해 총 4명의 이사에 대해 20억원의 보수 한도를 책정한 것이다.

2015년 한 해 동안 우원개발은 총 3명의 이사에 대해 11억원의 보수 한도 가운데 총 4.7억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그 중 사외이사 1명의 보수는 약 1천 4백만원이었고 2명의 사내이사 보수가 4억 6천만원이었다. 사내이사 2명은 김기영 대표이사와 이상영 사내이사였다.

그런데 2016년 6월까지 6개월간 우원개발은 총 4명의 이사에 대해 총 5.3억원의 보수를 이미 지급했다. 그 중 사외이사 1명의 보수는 7백만원이었고, 나머지 3명의 사내이사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 2천 6백만원이었다. 2016년 6개월간의 이사 보수가 이미 2015년 한 해 임원 보수를 뛰어넘은 상황이다. 참고로 2015년 6월까지 김기영 대표이사와 이상영 사내이사에게 지급된 보수는 약 2억 2천 6백만원이었다. 2016년에 김정민 이사로 신규로 선임되었는데 6개월간의 임원보수는 2015년 대비 3억원이나 증가한 셈이다. 각 개별 이사에게 지급된 보수가 밝혀지지 않아 김정민 이사의 몫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김정민 이사가 이사회에 추가로 선임되면서 우원개발의 임원보수가 대폭 증가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원개발은 토공 분야에서의 탁월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형 건설사와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여 기업 가치 증대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누적 이익잉여금은 116억원 수준으로 아직까지 우원개발이 가야 할 길은 먼 상황이다. 우원개발의 주주들 역시 우원개발의 이러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우원개발의 성장성을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다. 우원개발을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는 주주 수는 5천명이 넘는다.

우원개발은 이러한 주주들의 간절한 기다림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모든 임직원의 역량을 결집시켜 기업을 성장시키고 그 이익을 전체 주주와 임직원이 골고루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우원개발은 다시 한 번 주주들의 바램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대목이다.